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영화 '기생충'과 한국사회의 빈부 격차

지난 5월 25일 제 72회 칸 국제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寄生蟲)'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에서 새장을 열어 쫓겼다. 한국영화 100년이 되는 해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하여 더욱 감동적이다.

8분간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시상대에 오른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주연 배우는 더욱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봉 감독은 '기생충'은 위대한 배우들이 없었다면 한 장면도 찍을 수 없었다. 함께 해준 배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 수상 소감을 말했고, 송강호는 '인내심과 슬기로움과 열정을 가르쳐주신,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들에게 이 영광을 바칩니다'고 화답했다.

'봉준호는 마침내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 (인디와어)' 등 많은 의신과 전 세계 영화팬들에게 전무후무한 호평을 받은 '기생충'은 빈부 격차가 심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코믹하고 슬프고 리얼하게 영상 미학을 창출했다. 조감독과 무명 배우로 만나서 17년 간 함께 호흡하며 영화에 열정을 바쳐온 천재적인 감독과 명배우의 합작품

이다.

가족 희비극이라고도 하는 '기생충'은 어떤 줄거리일까. 언덕배기 삼거리 반지하에 사는 기택(송강호)의 가난한 가족 4명이 아들 친구의 소개로 영어 가정교사로 들어간 부자 집 박 사장 집에 미술치료 교사와 가정부, 운전기사로 가족 네 명이 위장 취업하여 들어가서 기생충처럼 살면서 겪는 애환(哀歡)이 줄거리를 이룬다.

빈부(貧富) 격차라는 세계 공통의 사회문제를 한국적 사회 현실을 배경으로 웃음과 슬픔, 반전(反轉)으로 풀어낸 좋은 영화다.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가볍게 웃으며 재미있게 보고 싶다면 자기기도 모르게 피부 깊이 들어와 아프게 박히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좋은 영화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지 않은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부자 집에 급수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가난한 집에 흙수지를 물고 태어난다.

옛날에는 노예와 귀족, 상놈과 양반 등의 신분과 계급이 인간 자체를 규정하고 구속하는 봉건사회, 반민주적인 권위주의 사회였

다. 여기에 여자와 남자라는 성별 차별, 흑인과 백인 등의 인종 차별, 구교와 신교·기독교와 이슬람교 등 종교적 차별이 심한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회문제의 국가적 문제가 되어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胎生的)인 차별도 있지만, 태어난 후의 국가사회적인 거대 환경의 차이와 개인의 근면과 나태, 능력 등의 개인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의 존재 원리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자연법적인 타당한 가치선언과 헌법적인 보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사회 속의 인간들의 삶의 행태와 문화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불합리적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 사회적 공감과 진보적인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다. 상위 10%가 부(富)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자본주의의 최대 맹점(盲點)이면서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점이 바로 빈부 격차다. 돈을

돈을 벌고,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디다 어떻게 보관하고 써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는 사람들도 있다. 하층 서민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기도 벅하다. 전 국민 10명 중 4명이 평생 자기 집이 없이 전세나 월세에 산다는 통계도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빈부 격차를 좁히고 완화시키기 위하여 실업자, 노인, 여성, 장애인, 어린이, 청년, 최저 생계 대상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저소득층에게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고소득정책도 복지정책의 하나다.

차이도 있고, 차별도 있지만,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된다. 불합리하고 구조적인 차별은 더구나 안된다. 인간은 하늘이 내린 존귀한 존재다. 인간 개개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장 귀중한 생명이다. 사회체제와 개인적인 능력과 환경의 차이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을 때는 개인도 불행해 지고, 국가도 불행해 진다.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힘은 대통령과 국회 등 정치지도층에 있다. 아무리 욕을 많이 먹어도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항상 깨어있는 눈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심판해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社說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인하해야

법원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를 1천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화해 권고를 해 입장료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법원의 권고에 대해 담양군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가로수길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은 2006년 옛 국도 25호선 메타세쿼이아길 2.1km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상인 1천원의 입장료를 받았고 2015년 2천원으로 인상했다.

담양군은 "지방자치법에 공공시설 사용료를 조례로 제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과 관광객 반발이 이어졌다.

최형식 군수는 최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부지 100%는 군유지로서 입장료 2천원으로 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예코센터 등 무료로 둘러볼 수 있는 데다 주차비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결코 비싼 입장료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법원이 입장료 1천

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로수길 돈을 받으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고 반발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3민사부(김성흠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세쿼이아 입장료(2천원) 반환소송에 대해 1천원으로 조정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지방법원은 "담양군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함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여행객에게도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공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시설이용을 유도하는 추세와 비교해도 관리유지 보수 등을 위해 전혀 징수하지 않을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 단위의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담양군이 입장료를 지금의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단이 있기를 촉구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亦聚群英

역취군영

亦聚群英

▷ 뜻: 또한 여러 영웅(英雄)을 모으니, 본전(墳典)을 강론(講論)하여 치국(治國)하는 도(道)를 밝힘인.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전기차량 화재시 대처 요령

2011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환경부 기준 약 6,000대 정도 보급됐다고 한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과 지역별 충전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조대원으로서 일반차량(휘발유, 디젤)이 아닌 전기차량에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대처요령에 대해 알려드리려 한다.

전기자동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최고 650볼트의 전기구동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

방법이 일반차량과 다르고 감전사고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화재 발생 시 배터리에 불이 붙기 전에는 소화기 등을 사용해 진압시도가 가능하나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진압이 어렵고 위험하므로 차량에서 멀리 떨어져 대피해야 한다.

119에 신고 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꼭 출동한 소방관에게 전기자동차임을 알려야 한다. 또한 침수된 차량인 경

우 고전압 배선 등을 직접 접촉하면 감전에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차량 등 화재 발생 시 다양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다. 화재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말고 대처요령 숙지와 차량용 소화기 배치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챙기도록 하자.

이희창 / 화순 동복안전센터 소방교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women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apped our positions?).